

투데이 칼럼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

북한이 지난 11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12월에는 KBM을 포함해 이틀 연속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남북한의 소통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서울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남과 북의 자유로운 통행을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 바로 '남북출입사무소'다. 남북 간 출입 통도인 '남북출입사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아 역사관을 열었다.

그동안 남북출입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후 남북 장관급 고위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분단 이후 접해 없는 남북 통행이 예상됐다.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출입사무소 설치 문제가 논의됐다. 드디어 2003년 12월 24일,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승인과 대북 연락 업무, 그리고 출입통관 검역 업무를 맡을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경의선 도라산역 부근에 문을 연 것이다.

2006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가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됐던 이 건물은 남북출입의 역사를 증명하는 곳으로 거듭났다. 역사관은



정복규
논설위원

을해로 20주년을 맞은 남북출입사무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냉·온탕을 오고 간 남북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남북이 육로로 오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개성 방향으로 가는 경의선 철도를 비롯 파주, 금강산 방향의 동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가 지나고 고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당시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곳곳에 묻혀있는 지뢰였다. 지뢰가 터지는 소리가 남북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월수, 금은 북측이 지뢰 제거 공사를 하고 화·북·토는 남측에서 공사를 했다.

지금까지 경의선을 통해 152만 명, 동해선으로는 156만 명이 남북을 오갔다. 현재 남과 북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

로 보고 있다. 남한 주민이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출국 대신에 출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온다면 입국 대신 입경이라고 한다. 북한에 가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필요했고, 세관과 검역 등도 거쳐야 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가깝다.

이른 아침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출퇴근 회담과 당일 관광도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 개성공단이 멈추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하루가 멀게 북한을 오갔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개성공단은 2004년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북측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 해설원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

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어느 기업인은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남북의 인재를 힘을 합쳐 세계적인 연구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우수 인재들과 작업을 했다.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쉬운 점이다. 그는 개성공단에 총 2백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나 북측에 12년간 걸려 놓은 인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가족과 같았던 북한 직원 40여 명과의 이별은 아픔으로 남아있다. 최근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파주로 향했다. 검문소를 지나 매일 같이 출근하던 길이 여전히 익숙하다.

지척에 있지만 이제는 갈 수 없는 공장이다. 아쉬운 마음을 역사관에서 달래본다. 개성공단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안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최근엔 30여 개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이다. 남북출입사무소의 역사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역사관을 개관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실종된 제 권리 찾습니다”



지난 4일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헤비메트 밀레이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마스크를 쓴 참가 여성이 “내 권리는 어디에, 누구 본 사람?”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와지마 피해 현장 수색하는 일본 구조대



지난 5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5일 현재까지 사망자 숫자는 92명으로 늘어났으며 줄든 티음이 지나면서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과제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가 해당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로 부양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지출의 부담까지도 지게 됐다.

요즘 갈수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창업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

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이다.

취업,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취업과 창업 지원 정책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는 당장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현황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교육 정보, 경제 활동, 가구 구성 등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에 대한 특성도 분석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분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건강백세 위한 집중력 향상

건강 백세를 위한 각종 정보에 관심이 높고 있다. 건강 정보를 전하는 매체들도 넘쳐나고 있다. 최근에는 '겉 씹기'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외 어느 유명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겉 씹기를 한 후에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게 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씹기가 두뇌 활성,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씹기에 안정맞춤인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종전에는 대개 견과류 등을 씹어 뇌를 자극하기 위한 노력이 소개되었다.

지속해서 겉을 씹는 행위가 뇌기능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의 이완 작용과 행복감을 높여 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겉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적 능력 향상과 더불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됐다.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연구가 이어졌다.

일본 어느 치과대학 교수는 '겉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다. 겉을 씹어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종종 소개된다. 세계적인 미국의 어느 프로골퍼는 2021년 PGA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50대 나이에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후 그의 건강과 집중력에 이목이 쏠렸다. 선수는 집중력 유지를 위해 겉을 씹는다고 했다. 국내 유명 골프 선수들도 겉 씹기를 통해 긴장감을 풀고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어느 회사는 유명 골프단을 위한 맞춤겉을 개발해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